

interview

최문길 포차천국 대표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의 인기

포차천국의 신메뉴는 국내산 오리고기를 활용한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통해 잘 알려진 이재훈 셰프가 개발에 참여했다.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 개발 이후 포차천국은 유튜브 쏘영, MBC 생방송 오늘저녁, SNS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포차천국은 “젊은 소비자층이 보통 비싸다고 생각했던 오리고기를 포장마차에서 저렴하지만 퀄리티 높은 메뉴로 즐길 수 있어 젊은 소비자층에 큰 호응과 만족을 얻고 있다”며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는 신메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차천국의 인기메뉴 중 하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리고기 소비를 늘려라!

간편하고 맛있는 오리고기 요리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는 양념에 버무린 파무침 위에 얇게 썬 오리고기를 올린 형태로 제공되며, 손님이 직접 가열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국내산 오리고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차천국은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는 고객이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조리가 간편해 점주의 만족도도 높은편이다. 또, 고객들도 기호에 맞게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어 일석 이조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안주상

포차천국은 “술상을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덕분에 포차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외식을 줄이고 배달 또는 테

이크 아웃 등으로 패턴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B2B 제휴를 강화해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포차천국은?

2016년에 외식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주)미트더석세스가 런칭한 ‘酒食회사 포차천국’은 “밥도먹고 술도먹고”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고객이 식사부터 술까지 한자리에서 합리적인 외식 문화를 즐기도록 한 브랜드다. 런칭한 이후 유행을 선도하는 신메뉴와 가성비 높은 메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2021년 4월기준 200호점까지 가맹점을 늘려오고 있다.

오리고기 공동 마케팅 추진 신메뉴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

지난해 10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포차천국과 함께 오리고기 신메뉴를 전국 180여개 포차천국가맹점에 출시했다.

이번 국내산 오리고기 활용 신메뉴 출시는 지난해 9월 오리자조금과 한국오리협회, (주)미트더석세스가 오리고기 중량 단위 판매 정착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오리고기 판매 확대를 목표로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신메뉴 출시후 6개월이 지났다. 포차천국의 ‘산더미 대패 오리불고기’는 잘 판매되고 있을까? 흔히 마리 단위로 판매되어 젊은층에게 막연히 고가로 인식되던 오리고기가 ‘포차천국’에서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 알아봤다.



최문길 대표

